

분만 데이터 전처리

1. 시군구별_산후조리원_통계_2020_2023.csv

예시 top 10

년도	시도	시군구	산후조리원수	일반실_병실수	특실_병실수	총병실수
2020	서울	종로구	2	880	2460	3340
2020	서울	중구	2	730	780	1510
2020	서울	성동구	1	450	0	450
2020	서울	광진구	3	1000	580	1580
2020	서울	동대문구	7	2080	1326	3406
2020	서울	중랑구	4	1150	1090	2240
2020	서울	성북구	3	840	298	1138
2020	서울	강북구	3	910	800	1710
2020	서울	도봉구	4	1060	640	1700
2020	서울	노원구	5	1430	1082	2512

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

- 단위: **년도 × 시도 × 시군구**
- 각 행은 “특정 연도, 특정 시·군·구에 있는 산후조리원과 병실 현황”을 나타냅니다.
- 즉, “2021년 서울시 강남구에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고, 일반실/특실 병실이 몇 개인가?” 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.
- 기간은 **2020년 ~ 2023년**입니다.

컬럼 설명

- **년도**
 - 해당 통계가 집계된 연도입니다. (2020, 2021, 2022, 2023)
- **시도**
 - 시·도 이름입니다. (예: 서울, 부산, 경기, 강원 ...)
- **시군구**
 - 시·군·구 이름입니다. (예: 강남구, 수원시, 원주시 등)
- **산후조리원수**
 - 그 시군구 안에 있는 산후조리원 **기관 개수**입니다.
- **일반실_병실수**
 - 그 시군구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의 **일반실 병실 수 합계**입니다.
- **특실_병실수**
 - 그 시군구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의 **특실 병실 수 합계**입니다.
- **총병실수**
 - **일반실_병실수 + 특실_병실수** 로 계산한 **전체 병실 수**입니다.

앞으로 활용 방안

- 지역별 산후조리원 공급 수준 비교
 - 같은 연도 안에서 시군구별 산후조리원수, 총병실수를 비교하면
“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리원 인프라가 부족한가?”를 볼 수 있습니다.
-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분석
 - 특정 시군구에 대해 2020→2023년으로 가면서
조리원 수, 병실 수가 늘었는지/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분만 수와의 매칭
 - 분만 데이터(시군구별_연령별_분만건수_2018_2024)와 연도·시군구 기준으로 묶어서
“분만 건수 대비 산후조리원 수 / 병실 수” 같은 수요 대비 공급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.
- 조리원당 평균 병실 수 산출
 - $\text{평균 병실 수} = \text{총병실수} / \text{산후조리원수}$ 를 계산해서
지역별로 “규모가 큰 조리원이 많은지, 작은 조리원이 많은지” 같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.

2. 시군구별_연령별_분만건수_2018_2024.csv

예시 top 10

연도	시도	시군구	연령구분	분만건수
2018	서울	강남구	19세 이하	0
2018	서울	강남구	20~29세	1124
2018	서울	강남구	30~39세	8000
2018	서울	강남구	40~49세	628
2018	서울	강남구	50세 이상	0
2018	서울	강동구	19세 이하	0
2018	서울	강동구	20~29세	717
2018	서울	강동구	30~39세	2740
2018	서울	강동구	40~49세	136

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

- 단위: 연도 × 시도 × 시군구 × 연령구분
- 각 행은 “특정 연도, 특정 시·군·구에서 특정 연령대 여성의 분만 건수”를 의미합니다.
- 예를 들어 한 행은 “2020년 서울 강남구, 30~39세 여성의 분만 건수가 몇 건인가?”를 나타냅니다.
- 기간은 2018년 ~ 2024년입니다.

컬럼 설명

- 연도
 - 분만이 발생한 연도입니다. (2018 ~ 2024)
- 시도

- 시·도 이름입니다. (예: 서울, 부산, 인천, 경기, 강원 등)
- **시군구**
 - 시·군·구 이름입니다.
- **연령구분**
 - 분만을 한 여성의 연령대 구분입니다.
 - 예: 19세 이하, 20~29세, 30~39세, 40~49세, 50세 이상
- **분만건수**
 - 해당 연도·지역·연령대에서 발생한 **분만 건수**입니다.
 - 값이 0인 경우는 “그 조건에서 분만이 없었다”는 의미입니다.

앞으로 활용 방안

- **지역별 분만 규모 파악**
 - **연령구분** 을 모두 합치면, 특정 시군구·연도에 대한 **전체 분만 건수**를 알 수 있습니다.
- **연령대별 출산 패턴 분석**
 -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
“어느 지역은 30~39세의 비중이 특히 높은지”,
“10대·40대 분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” 등을 볼 수 있습니다.
- **시간에 따른 출산 감소·증가 추세 분석**
 - 연도 축으로 **분만건수** 변화를 보면, 저출산 트렌드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**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분석**
 - 산부인과 수 (**지역별_산부인과_기관수_2018_2025_**)나 산후조리원 통계와 함께 사용하면
“분만 수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”,
“분만 수는 줄어드는데 인프라는 그대로인 지역”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

3. 지역별_산부인과_기관수_2018_2025_.csv

예시 top 10

시도	시군구	산부인과	연도
서울특별시	강남구	55	2018
서울특별시	강동구	17	2018
서울특별시	강북구	9	2018
서울특별시	강서구	14	2018
서울특별시	관악구	20	2018
서울특별시	광진구	14	2018
서울특별시	구로구	12	2018
서울특별시	금천구	10	2018
서울특별시	노원구	17	2018

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

- 단위: 연도 × 시도 × 시군구
- 각 행은 “특정 연도, 특정 시·도·시군구에 존재하는 산부인과 기관 수”를 나타냅니다.
- 예: “201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었는가?”
- 기간은 2018년 ~ 2025년입니다.

컬럼 설명

- 시도
 - 시·도 이름입니다.
 - 예: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경기도, 강원특별자치도 등
 - (다른 데이터셋의 서울, 경기, 강원 과 명칭 체계가 조금 다르므로, 추후 조인할 때는 이름 통일이 필요합니다.)
- 시군구
 - 시·군·구 이름입니다.
- 산부인과
 - 해당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기관 개수입니다.
 - 의원·병원 등, 분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“산부인과 표시 과목이 있는 기관”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
- 연도
 - 기준분기(예: 2018년 4분기 → 2018)에서 연도만 추출한 값입니다.

앞으로 활용 방안

- 지역별 산부인과 공급 수준 비교
 - 같은 연도 내에서 시군구별 산부인과 값을 비교하면 “산부인과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시간에 따른 의료기관 분포 변화
 - 2018→2025년 동안 특정 지역의 산부인과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“필수의료(산부인과)가 줄어드는 지역”을 찾을 수 있습니다.
- 분만건수와의 매칭
 - 분만 데이터와 연도·시군구 기준으로 묶어서
 - 산부인과 한 곳당 분만 건수(분만건수 / 산부인과)
 - 분만건수 대비 산부인과 수같은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.
 - 이를 통해 “업무 부담이 과도한 지역” 혹은 “인프라는 많은데 분만은 적은 지역”을 정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산후조리원 데이터와 함께 인프라 구조 보기
 - 산후조리원 수, 산부인과 수, 분만건수를 연결하면
 - “분만은 많지만 조리원 인프라가 부족한 곳”

- “산부인과는 많은데 조리원은 적은 곳”
등 연계 인프라 간 불균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.

세 데이터를 함께 쓸 때의 큰 그림

1. 수요(분만) vs 공급(산부인과 + 산후조리원)

- 분만건수 를 “수요”로 보고,
- 산부인과, 산후조리원수 · 총병실수 를 “공급” 지표로 보면
- 지역별·연도별로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.

2. 취약지역 탐지

- 예:
 - 분만건수는 많음
 - 산부인과 수는 적음
 - 산후조리원수/병실수도 적음
- 이런 시군구를 “모성·신생아 관련 의료 복지 취약지역” 후보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3. 시간 흐름과 정책 이슈 연결

- 2018~2025년 동안
 - 분만 감소 속도와
 - 산부인과·산후조리원 감소 속도를 비교해 보면
- “저출산보다 더 빠르게 인프라가 줄어드는 곳” 같은 신호를 찾을 수 있고,
최근 전공의/필수의료 이슈와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.